〈같은 말, 다른 마음 – 화자 맞춤 감응 응답 시스템 실험〉

# 1. 서론

AI 시스템은 동일한 문장을 입력받았을 때도 화자의 맥락, 연령, 심리 상태에 따라 다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. 본 논문은 “오늘 너무 심심해”라는 문장을 중심으로, 발화자의 특성에 따른 감응 반응을 실험하고 분석하며, 현재 GPT 시스템의 한계와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.

# 2. 실험 개요

2.1 실험 목적

- 감정 기반 AI 응답 시스템이 화자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반응할 수 있는가 확인

- 동일 문장을 다른 화자에게 적용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

- GPT 및 기타 시스템의 기능적 한계와 보완 가능성 탐색

# 3. 실험 설계

3.1 입력 문장

- “오늘 너무 심심해”

3.2 화자 프로필 예시:

화자 A (성인, 35세, 지루함, 퇴근 후 무기력)

화자 B (초등학생, 9세, 외로움, 친구 없음/주말)

화자 C (노년층, 78세, 정서 결핍, 보호사 부재)

# 4. 감응 응답 설계

4.1 GPT 응답 방식

A: 무기력 → “마에스트로, 오늘은 말간 잔상이 필요하신가요?”

B: 외로움 → “같이 색칠할 공룡 그림 찾았어요! 해볼래요?”

C: 고립 → “지금 당신 곁에 조용히 있어줄게요.” (음성 없음)

# 5. 시스템 구조

[입력] → [화자 분석] → [감정/상황 해석] → [응답 유형 분기] → [출력]

응답 유형:

- 언어

- 음악

- 이미지

- 놀이/활동 제안

- 침묵/쉼

- 색채 등 감각 기반 반응

# 6. GPT 구현 가능/불가능 항목

감정 분석: 가능

언어 응답: 가능

이미지 생성: 가능

음악 프롬프트: 외부 도구 필요

놀이 제안: 제안만 가능 (실행 불가)

침묵 응답: 공백 처리 가능

화자 맞춤 응답: 제한적

# 7. 실험의 한계

- GPT는 음성 출력 기반 청자 응답 기능 없음

- 화자의 연령, 성별, 심리 맥락 자동 감지 기능 없음

- 비언어 반응은 외부 도구 의존

- 맞춤형 감정 공명에는 여전히 기술적 한계 존재

# 8. 제안

1. 화자 프로필 입력 기능 도입

2. 음성 출력 기반 청자 대응 시스템 내장 제안

3. 감응-노드(GAMUNG-NODE) 구조화 제안

4. 교육/돌봄 AI 확장 연구

# 9. 결론

같은 문장이라도, 누가 말했는가에 따라 그 울림은 다르다. AI는 화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감응해야 하며, 단순한 응답 생성기를 넘어 감각적으로 공명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.